

# 기술인재, 中에 뺏길라... 정년 없애고 명장 특급우대

**삼성전자 명장 제도로 '동기부여'**  
**SK하이닉스** 올해부터 정년 폐지  
중전자업계 성장에 기술직 스카우트  
인력유출 막기 위한 '자구책' 풀이

전자 업계가 '베테랑' 기술자 예우에 나섰다. 기술직에 대해서는 정년을 없애거나, 장인 제도를 만들어 포상하는 등 공을 치켜세우는 모습이다.

## ◆'명장' 우대 붐, '정년 폐지'까지 도입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일 경기도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첫 '삼성명장' 4인을 선정하고 포상했다.

삼성명장은 기술 전문성과 노하우가 요구되는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장인 수준의 숙련도를 겸비한 직원을 인증하는 제도다. 기술뿐 아니라 후배 양성 및 경영 기여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과 첫 '삼성명장' 4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명장에게는 명예직과 소정의 포상이 주어진다. /삼성전자

첫 명장 4인은 제조기술과 금형, 계측과 설비 분야에서 배출됐다. 생활가전사업부와 글로벌기술센터, DS부문 파운드리사업부와 TSP 등에서 골고루 나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도 명장 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술직 공로자에 감사를 표하고 동료 직원들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며 "명장은 명예직으로 소정의 포상금이 주어진다"고 소개했다. 앞서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은 지난

달 기술력이 높은 엔지니어를 정년과 관계없이 근무케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술직에 대해서는 정년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이를 시행할 방안을 고안해 올해 정년 대상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술직 우대 정책은 최근 업계 트렌드 중 하나다. 전자 업계는 매년 정기 승진 인사에서 현장 기술직을 중용하는 경향

을 이어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임원급 기술직인 펠로우와 마스터를 운영하고, SK하이닉스가 기술사무직 호칭을 TL로 통일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은 안정성을 중요시 한다"며 "능력이 있는 기술자가 오래 일해주는 것이 회사에 긍정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 ◆인력 유출 방어 나서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업계 움직임을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하고 있다. 중국 전자 업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국내 기술직을 흡수하는 상황이라 국내 업계가 이를 막기 위해 수습에 나섰다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3분기 전자공시를 기준으로 평균근속 연수는 삼성전자가 11.4년, SK하이닉스가 10.65년으로, 매출액 기준 상위 30대 그룹 평균 근속연수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여기에 기술직만을 보면 근속연수는 더 낮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정기적으로 인력 유

출을 막기 위한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해외로 떠나는 기술직이 잇따르면서 위기감도 팽배해졌다는 후문이다. 특히 정년을 앞두거나, 승진 인사에서 고배를 마신 임원급 기술직 유출이 심각하다고 전해진다.

한 업계 종사자는 "중국 기업들이 임원 승진이 불발된 부장급이나, 계약 만료를 앞둔 임원급 기술직에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안을 해온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며 "대부분 1~2년 계약직에 중국 현지 근무지만, 정년을 앞둔 상황에서 연봉의 5배에서 10배 제안을 받으면 쉽게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술직은 다른 업종에 비해 이직이 잦다. 근속연수가 낮다고 중국으로 인력이 유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역량 있는 인력들이 처우가 비슷한 경우에는 국내보다 해외 기업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인다. 정부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산업기술 해외유출시 손해액 3배 배상해야

### 정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관련기업 M&A 정부 승인 거쳐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하기로

정부가 우리 산업의 발전을 막는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엄격히 사전 통제하고 기술 유출자에 대한 손실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시도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크게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재판과정 관련 피해기업에 불리한 제도 개선 ▲기술보호 유관기관의 효과적 업무추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는 국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 R&D 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이 자체 개발한 경우에도 그간에는 신고 등 아무런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을 고의로 유출한 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그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3년형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기술 유출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 기업에 기술유출에 따른 손실 입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AI, 신소재 등 신규 업종으로 확대·지정하고, 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해 기술보호 범위를 넓혔다.

중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컨설팅 등을 지난해 170곳에서 올해는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특허청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의 영업비밀침해 단속권을 적극 활용하고,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릴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도 이날 '방위산업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로 방산기술을 유출한 기업에 대해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게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최신우 기자 grandtrust@

## 이랜드, 오너가 2선 후퇴... 전문 CEO 체제로

### 조직 인사·개편

박성수 회장, 신성장동력에 집중  
박성경 부회장, 재단 이사장 맡아

이랜드가 대대적인 경영체제 개편을 단행했다. 박성수 회장은 신 성장동력 발굴에 집중하고, 동생인 박성경 부회장은 이랜드재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경영에서 손을 뗐다. 대신 계열사별로 30~40대 전문경영인 체제를 강화했다.

이랜드그룹은 내년 창사 40주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조직·인사 개편을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랜드 관계자는 "이번 경영 체제 개편의 핵심은 계열사별 이사회 중심의 운영 체제를 강화하고 독립경영 체제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면서 "박성수 회장은 계열사 및 사업부별 자율경영이 될 수 있도록 미래 먹거리 발굴 및 차세대 경영자 육성에만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의 배경에는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전문성과 리더십이 검증된 경영진을 주요 계열사에 전진 배치하여 독립경영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또한, 기존 사업 틀에 얽매이지 않고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명망 있는 사외이사 영입을 통해 투명경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성경 부회장은 부회장직에서 물러나 이랜드재단 이사장을 맡아 이랜드의 나눔 경영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앞장선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그룹의 강한 의지를 담



김일규 이랜드그룹 부회장

최종양 이랜드그룹 부회장

이은홍 이랜드그룹 사장

김현수 이랜드그룹 사장

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성경이사장이 지금까지 맺어 온 중국 및 아시아권 대기업 최고 경영층과의 유대 관계 강화 역할은 계속 맡는다.

## ◆미래성장을 위한 파격적 인사 단행

이번 인사를 통해 이랜드는 주력 계열사의 대표이사 직급을 부회장 및 사장으로 격상하여 경영상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사업 부문별 대표이사를 30~40대의 참신한 CEO로 대거 발탁, 공동 대표 경영 체제를 만든 것이 특징이다. 이는 안정감과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미래 성장을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이랜드리테일은 최종양 신임 부회장이 유통법인 전체를 총괄한다. 사업부문 대표로 석창현 상무를, 상품부문 대표로 정성관 상무를 각각 선임했다.

이랜드윌드는 김일규 신임 부회장이 총괄하고, 패션부문 대표로 최윤식 상무가 선임됐다. 올해 만 40세인 최 상무는 SPA 브랜드인 스파오 사업 본부장을 맡아 역발상과 혁신을 통해 스파오를 국내 최대 토포 SPA로 키워낸 것을 인정받았다.

이랜드파크는 김현수 신임 사장이 호

텔과 리조트, 외식 사업을 총괄한다. 외식 부문 대표는 올해 만 35세인 김완식 외식 본부장이 맡는다. 김완식 본부장은 그동안 외식 사업부분의 운영 책임자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치열한 외식 시장 경쟁 속에서도 공격적인 마케팅과 영업활동을 통해 외식 시장 선두를 지켜낸 것을 인정받았다.

또한 이랜드그룹이 중국에 이어 해외 사업의 승부처로 삼고 있는 인도, 베트남 시장 공략을 위하여 이은홍 신임 사장을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권 전체 대표로 임명했다. 이은홍 사장은 신입사원 때부터 20년간 스리랑카와 인도, 베트남, 미얀마 등 이랜드의 해외 생산 인프라를 직접 일구어낸 그룹 내 대표적인 '생산통'으로 꼽힌다.

이랜드 관계자는 "내년이면 창립 40주년을 맞게 되는 이랜드가 각 계열사별 경쟁력 강화를 통해 그룹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면서, "이랜드의 향후 40년 밑그림을 만드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선진 기자 tree6834@

## 文, 작년 이어 올 첫 외부일정 '일자리' 연관

### >> 1번 '文, 일자리 창출 올인'서 계속

아울러 문 대통령의 지난해 첫 외부 일정도 일자리와 연관이 깊다. 문 대통령은 그해 경남 거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했고, 직접 조선산업

현황보고를 받았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위기 극복 및 재도약을 추진 중인 한국 조선업을 격려하고, 새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합쳐 얼음을 깨고 힘차게 전진할 것을 다짐하자는 취지에서 쇄빙LNG선박 건조현장을 방문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새해 첫 현장 행보를 통해 일자리창출 의지를 피력하자 '집권당' 더불어민주당도 힘을 보탤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날 정책조정회의 때 "대통령은 올해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민주당 역시 더 좋은 성과로 국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